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돌봄 수요 예측 및 지표 고도화

1. 서론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 등 고령 1인세대의 돌봄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는 원도심과 대규모 주거단지 등 특정 지역에 고령층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배치가 균형적이지 않아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전주시를 대상으로 고령 1인세대의 분포와 돌봄 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접근성 및 불균형을 정량적으로 진단하여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데이터 및 방법론

데이터 출처

- 인구: 통계청 및 전라북도·전주시 통계 (65세 이상 인구, 독거노인 현황)
- 돌봄 인프라: 전주시 노인복지시설, 병원, 약국, 버스정류장 현황 (2025년 기준)
- 공간자료: 전주시 읍·면·동 행정경계 Shapefile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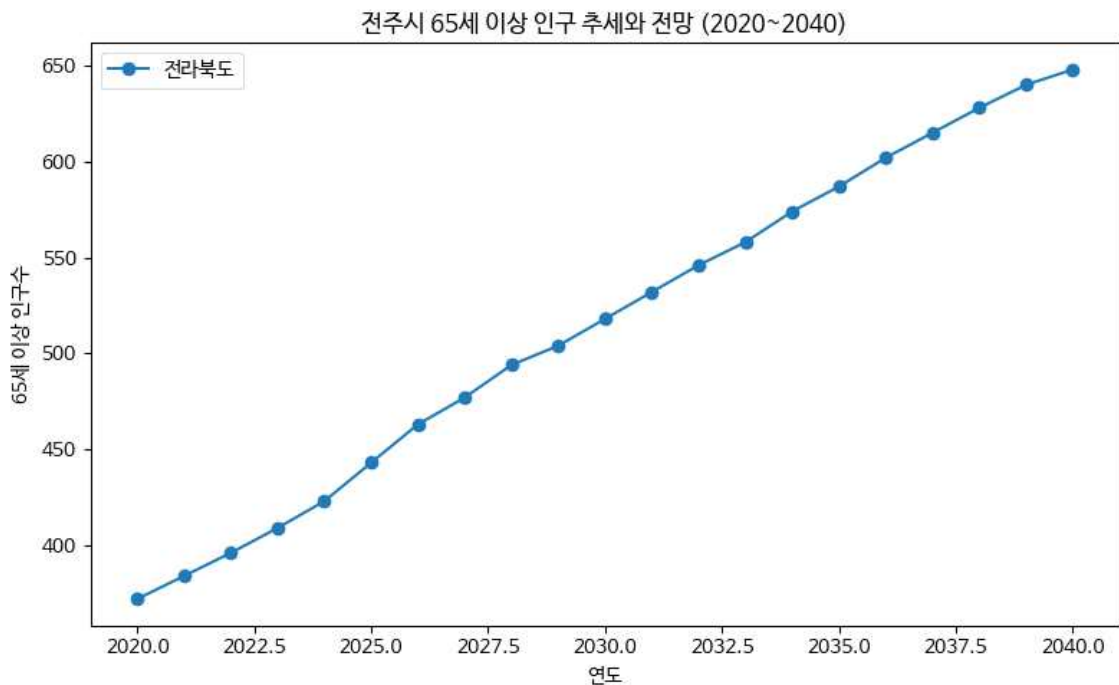
- 시계열 분석: 전라북도 전체 고령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0~2040)를 사용 전주시는 2020~2025년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단기 추세를 확인하고, 이후는 전북 추계치를 참조하여 장기적 증가 경향을 비교 이를 통해 전주시가
- 전북 평균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계열적으로 확인
- GIS 분석: Choropleth 지도(65세 이상 1인세대 분포), 돌봄 인프라 Overlay
- 접근성 분석: 복지시설 기준 500m 버퍼 접근성
- 정량 비교: 고령 1인세대 상위 5개 동의 인프라 개수 분석

데이터 한계

방문간호·요양서비스 이용률 등 서비스 지표는 확보하지 못했으며, 복지시설·병원·약국·교통 인프라를 대체 지표로 활용하였다. 향후 행정데이터 연계를 통해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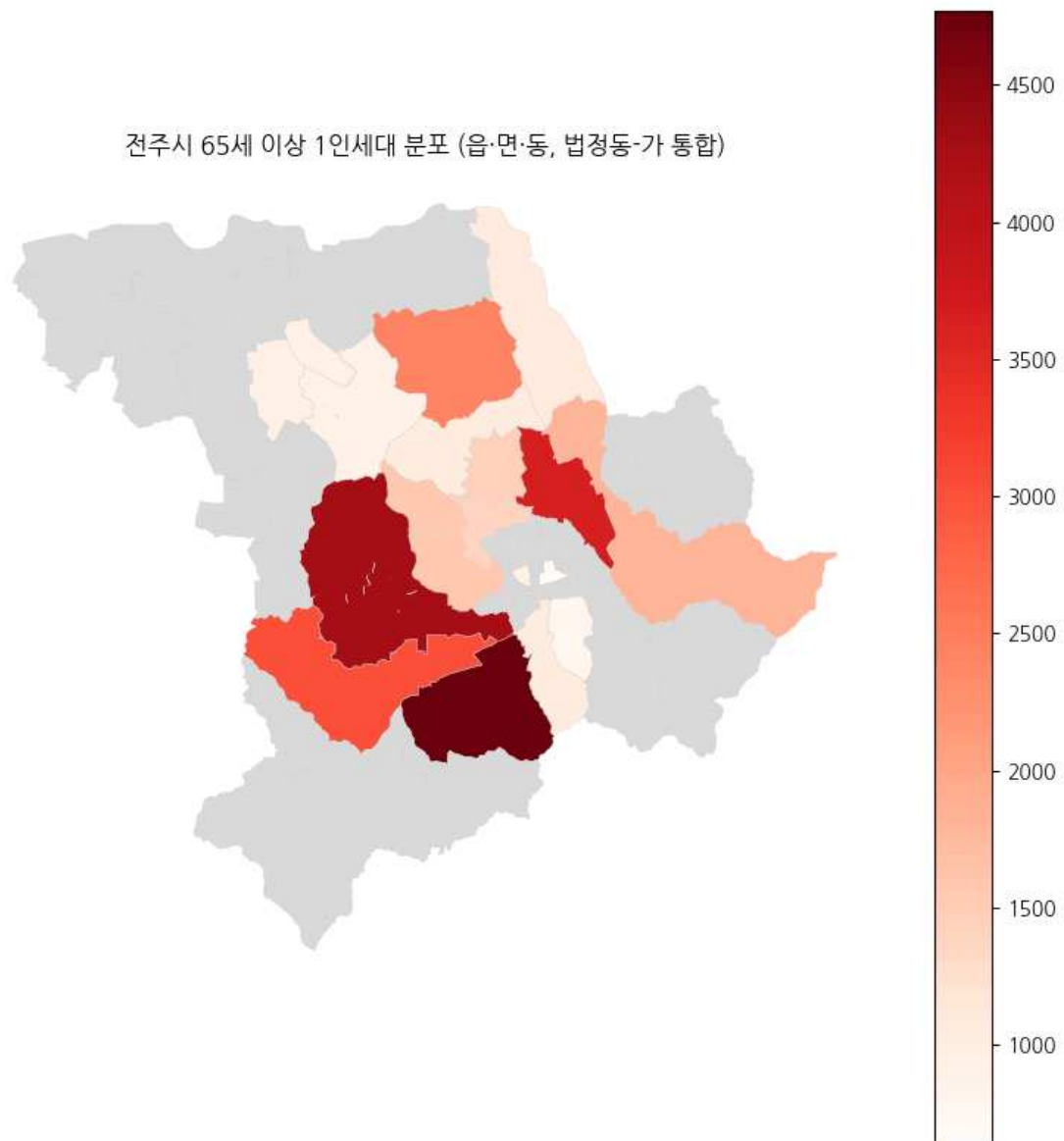
3. 분석 결과

(1) 고령인구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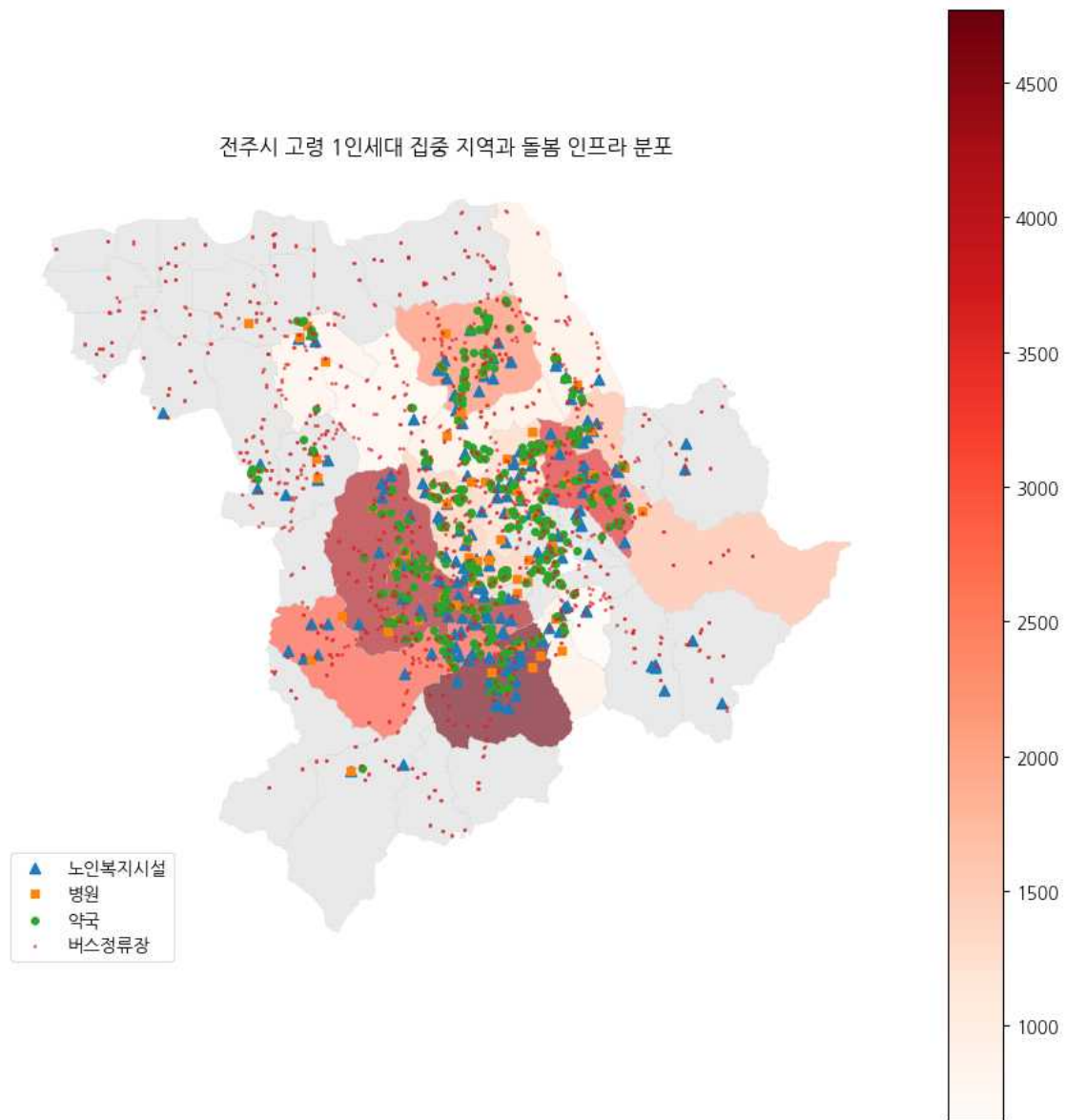
전라북도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약 37만 명에서 2040년 약 65만 명으로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는 2020~2025년 단기 실측 데이터에서도 도 단위 평균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돌봄 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시사한다.

(2) 고령 1인세대 공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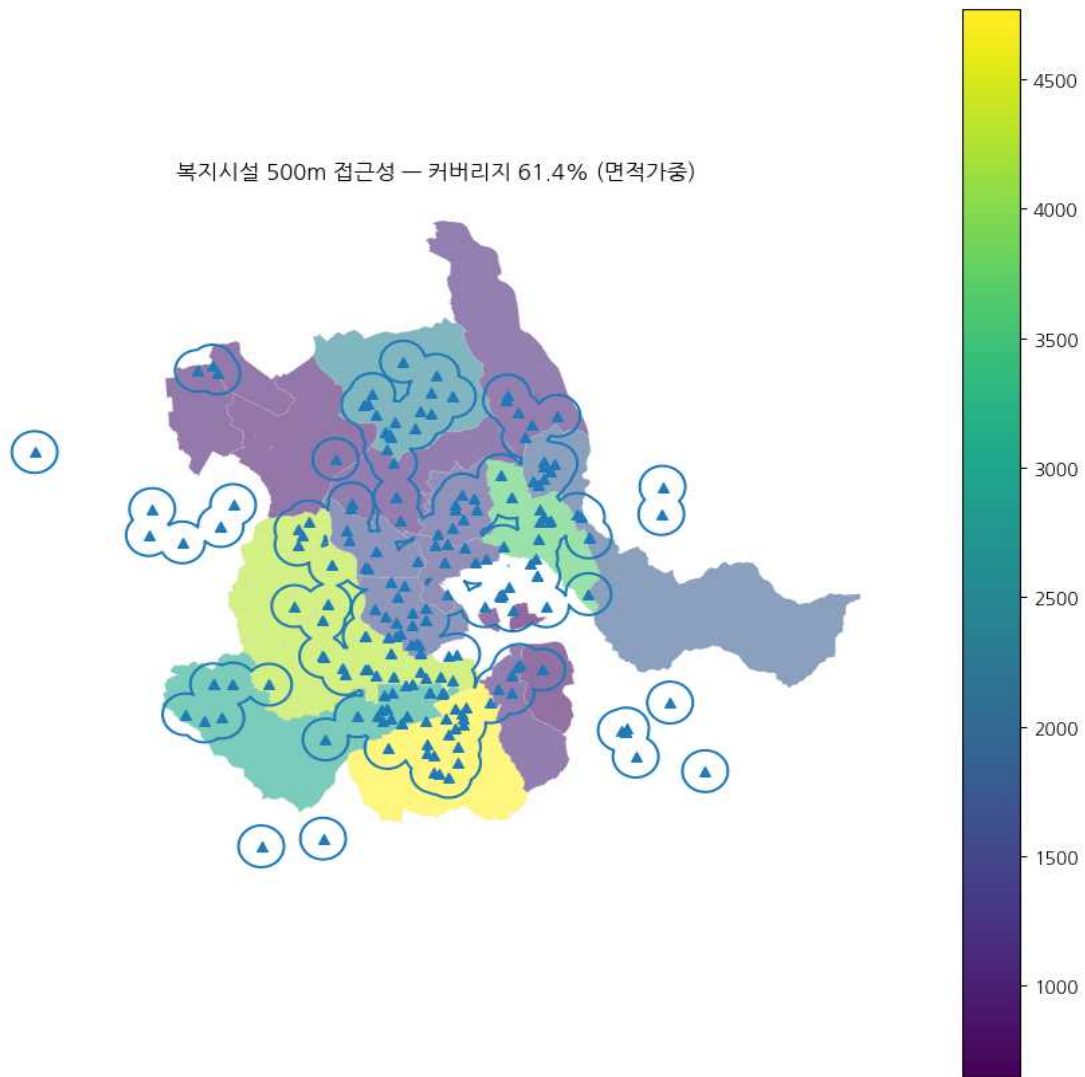
전주시의 65세 이상 1인세대는 효자동, 삼천동, 인후동 등에서 4천 명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원도심 지역(중앙동, 풍남동, 노송동)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인다. 반면 외곽 읍·면 지역은 1천 명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3) 돌봄 인프라와의 공간 불균형



전주시의 고령 1인세대는 효자동, 삼천동, 인후동 등에서 집중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복지시설·병원 분포는 상대적으로 적다. 인프라는 주로 도심부에 편중되어 있다.

(4) 접근성 분석



전주시 고령 1인세대의 복지시설 접근성을 500m 단위로 분석한 결과, 약 61.4%만이 복지시설을 생활권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및 정책 제언

전주시는 고령 1인세대가 특정 동에 집중되는 반면 돌봄 인프라는 도심에 편중되어 있어 수요-공급 불균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00m 생활권 분석 결과 절반 이상이 복지시설 접근이 어려워 돌봄 공백 위험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효자동·삼천동·인후동 등 고위험 지역 중심의 소규모 복지거점 확충, 생활권 취약 지역에 대한 방문형 서비스 확대, 교통 접근성 강화, 그리고 행정동 단위의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이러한 대응을 통해 전주시는 보다 균형 잡힌 고령친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